이베로아메리카 제5집(2003년)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우 성*

I. 들어가면서

중남미 스페인어를 말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스페인 스페인어와 대비하여 단일한 실체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492년에 있었던 콜럼부스의 중남미 대륙 도착과 함께 이식된 스페인어는 사용지역의 광활함으로 인해 음성·음운, 형태·통사, 어휘 면에 있어서 각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중남미 스페인어'는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 단일한 언어체계라기 보다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방언들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뻬드로 로나(José Pedro Rona; 1968)는 그의 글 '중남미 고유의 언어현상이란 무엇인가?(¿Qué es un americanismo?)'에서 언어를 시간, 공간, 사회계층이라는 세 개의 축을 갖는 이중체계(diasistema)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언어는 시간, 공간 그리고 화자가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부분적 체계로 이루어진 이중체계라는 것이다. 시간과 사회계층의 축을 그대로 두고 공간의 축만을 고려할 때 스페인어는 까스띠야(Castilla), 안달루시아(Andalucía), 아라곤(Aragón), 아스뚜리아스(Asturias), 까나리아제도(las islas Canarias)...등 스페인 여러 지역의 방언들과 멕시코(México), 콜롬비아(Colombia), 칠레(Chile), 페루(Perú), 아르헨티나(Argentina)...등 중남미 여러 지역의 방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언들로 이루어진 이중체계이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지역적으로만 한정하여 본다면 크게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방언들이 모여서 이루는 추상적인 체계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의 표준규범이 존재하는 스페인과는 달리 중남미는 각 국가마다 독립적인 표준규범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스페인어의 언어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스페인과 차이가 날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남미 스페인어의 언어적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 스페인어와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가 차이를 보인다는 인상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인상을 뒷받침하는 언어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일까? 물론 중남미에만 나타나고 스페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중남미 고유의 언어현상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중남미 고유의 언어현상(americanismo)에 대한 정의를 조금만 다르게 하면 스페인 스페인어과 중남미 스페인어의 차이가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지만 스페인에서는 쓰이지 않은 언어적인 요소들에 한정하여 두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를 관찰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언어의 표층을 이루고 있는 어휘부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중남미 전역에서 lindo(a)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스페인어에서는 이 어휘가 고어로 취급되고 있고, 대신에 bonito(a)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그렇다면 이 두 지역 간의 어휘적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과 함께 탄생한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이고, 스페인 스페인어의 어휘와 어떤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를 발생시킨 결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의 형성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정복자 및 식민자들이 가져온 스페인어 본래의 어휘를 근간으로, 정복 이전에 사용되었던 토착어, 노예의 수입과 함께 들어온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 그리고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의 결과로 생겨난 불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외래어와 현재 과학문명을 주도하는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1. 스페인어 본래의 어휘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목록을 구성하는 것 중 스페인어 본래의 어휘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기본어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 간에나 스페인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비록 나라가 다르더라도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 각 국의 관습이나 음식, 농사, 목축 등과 같은 각 국가 고유의 생활양식에 관한 어휘는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스페인어 본래의 어휘 중에서 중남미와 스페인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복과 함께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에 들어왔을 때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명명하기 위해 기존의 단어를 변형시켜 사용한 결과 생긴 단어의 의미변화 때문이다. 또한 정복 초기 단계에 진행된 스페인 여러 지역의 방언들이 평준화 과정에서 들어온 각 지역의 어휘들과 선원들이 사용한 용어들이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미 사용되지 않거나 지방어로 전락한 소위 말하는 '고어'의 지속적인 사용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여러 어휘 중에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혹은 개별 국가에서의 선호도가 달라 스페인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1 스페인어 본래 어휘의 변형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유럽, 특히 스페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해 새롭게 명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지시대상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기존의 스페인 어휘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여 '파인애플'을 piña로 명명했고, '도마뱀(caimán)'을 lagarto, '퓨마(puma)'를 león, '재규어(jaguar)'를 puma, 야마(llama)를 oveja, '칠면조(guajolote)'를 gallo de papada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명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원주민어를 배워감에 따라, 스페인어보다는 원래 이를 나타내는 원주민어의 어휘가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여 차츰 이런 어휘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원주민어의 어휘인 caimám, puma, jaguar, llama 등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중남미의 새로운 현실을 명명하기 위해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콜롬부스가 중남미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인도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주민들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indio(a)는 본래 '인도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제 원주민을 부르는 용어가 되었다.[1] '반란하다, 도망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 alzarse도 원래는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식민지 시절 '원주민이나 흑인이 농장에서 도망가다'라는 말로 의미가 전이되어 쓰였다.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지에서 '목장'의 의미를 갖는 estancia도 본래는'장원, 방, 자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이외에도 '구역' 나타내는 cuadra가 있다.

1.2 선원 어휘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의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선원들이 사용한 용

1) 현재 스페인어에서는 '인도'를 India라고 하지만 '인도사람'은 hindú라 부른다.

어들과 관련된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들이 중남미 해안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륙지역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중남미 정복 및 식민과정에 선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기나긴 항해 동안에 식민자들과의 오랜 시간 생활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선원들의 용어에서 유래한 어휘들을 보면, amarrar(묶다), poste, estaca(말뚝), halar 혹은 jalar(끌다), jalonear(끌다), maroma(곡예), maromear(줄타기·곡예를 하다), playa(주차장: 리오 델라 플라타), rumbar(향하다, 방향을 잡다), rumbear(향하다, 방향을 잡다), timonear(운행하다),timón(방향키), volantín(연), zafar(풀어놓다), bodega(창고), flete(운임), botar(버리다), arribar(도착하다), embarcar(차에 올라타다) 등이 있다.

1.3 스페인 지역어

중남미 스페인어에 스페인의 어느 지역의 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중남미 정복 및 식민 과정에 어느 지역 출신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였느냐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중남미 스페인어 전문가들 사이에는 스페인 지역 중에서 안달루시아출신 이민자들이 수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 형성 과정에 안달루시아 지방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스페인의 모든 지역이 정복과 식민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스페인 스페인어와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변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나뉜다.

보이드-보우만(Boyd-Bowman)의 연구에 의하면 1492년에서 1519년 사이에 중남미에 이주한 스페인 이민자들 중 안달루시아 출신이 40%를 점하고,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남미 스페인어를 특징짓는 요소들이 안달루시아 지방 스페인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음성적인 면에서 보

면, 세세오(seseo), -r과 -l의 혼동, 예이스모(yeísmo), -s의 기식음화 등과 같은 언어현상은 안달루시아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중남미 스페인의 형성과정에 안달루시아 지방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부인하고 있다. 물론 중남미 식민 사업에 참여한 안달루시아 출신자들의 수적 우세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스페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 말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공통적인 어휘를 선호했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특정 지역의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우선 현재까지 사용되는 스페인 지역어에서 유래한 어휘 중,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나온 어휘를 살펴보면 faenero(농부), panteón(묘지), mojo(국물), parejero(심복)... 등이 있다. 스페인 서부지역의 말에서 유래한 어휘로는 buraco(구멍), fierro(낙인)...등이 있고, aparatereo(과장된), pesebre(마굿간), juagar(헹구다)...등은 스페인 동북부 지역의 말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다.

1.4 고어

현재 중남미의 일부 국가나 혹은 넓은 지역에서는 스페인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지방어로 전락한 어휘들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모라 비센떼(Zamora Vicente; 1967)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스페인어에는 '고어'가 풍부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중남미 스페인어 전문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적 특징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사고에 그 토대를 둔 주장으로 현재의 스페인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레노 데 알바(Moreno de Alba; 1995)는 중남미 스페인어에 고어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우선 '고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고어란 '오래전에 사용이 중지된 어휘'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어휘가 고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어휘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lindo(아름다운)라는 말이 현재 스페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고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중남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스페인에서만 쓰이는 estafeta(우체국 지국)말은 고어라 불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어떤 어휘를 고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스페인 중심적이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고어를 상대적인 고어와 절대적인 고어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어휘는 상대적 고어이고,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라진 어휘는 절대적 고어로 보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고어, 다시 말하면 중남미에서는 널리 사용되나 스페인에서는 사라진 어휘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부에사와 엔기따(Tomás Buesa Oliver y José María Enguita Utrilla; 199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어휘들을 사용되는 지역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calenturado('febril'):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쿠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aguaitar('vigilar, acechar, mirar'):리오 델라 플라타,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쿠바

-alistar('arreglarse para salir'):중남미 전역

-arveja('guisante'):중미, 남미

-barrial('barrizal'):중미, 남미
-cobija('ropa de abrigo de cama'):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crespo('rizado, ondulado'): 볼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
-chancho('cerdo'): 중남미 전역
-droga('trampa, deuda'):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enojarse('enfadarse'): 중남미 전역
-frazada('manta'): 중남미 전역
-frijol('judía, habichuela'): 멕시코, 중미, 페루, 카리브
-lindo('bueno, excelente'): 중남미 전역
-liviano('ligero'): 중남미 전역
-llamado('llamamiento'): 중남미 전역
-mercar('comprar'): 중남미 전역; ('vender'):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pedido('petición'): 아르헨티나
-pollera('falda'): 리오 델라 플라타, 볼리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agallón('hinchazón en la garganta):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다음은 그 형태가 중남미나 스페인에서 다같이 나타나지만 중남미에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어휘들이다.

-ansias('náuseas):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apearse('hospedarse'): 아르헨티나, 페루, 중미, 쿠바, 도미니카)
-bravo('enojado, disgustado'): 중남미 전역
-candela('lumbre en genral'):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쿠바, 푸에르토리코,도미니카

-carpeta('tapete de mesa'):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
-catar('mirar, ver'): 콜롬비아,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칠레
-cuero('piel de las personas'): 리오 델라 플라타,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mudarse('irse, marcharse'): 리오 델라 플라타, 칠레, 페루, 에콰도르
-pararse('estar de pie'): 중남미 전역
-plata('dinero'): 중남미 전역
-recibirse('tomar grado universitario'): 중남미 전역
-recordar('despertarse'):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 도미니카
-retar('reñir, reprender'): 리오 델라 플라타, 칠레, 볼리비아
-saco('chaqueta o americana'): 중남미
-canilla('grifo'): 리오 델라 플라타, 콜롬비아

1.5 선호 어휘

스페인어와 같이 광활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경우 서로 간의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휘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어휘의 의미적 변형,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는 용어의 불일치,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한 어휘를 다른 어휘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 이유는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	중남미
beber	tomar
calcetín	media
cerilla	fósforo
comida	almuerzo
conducir	manejar
tardar	demorarse
hablar	conversar
vergüenza	pena
cocer	cocinar
reñir	pelear
papa	patata

이 밖에도 중남미 많은 지역에서 선호되는 어휘로는 transpiar(sudar), moreno(negro), trigueño(mulato), papá(padre), mamá(madre), egresar(culminar los estudios), egresado(graduado), ubicar(situar), apurarse(apresurarse), vidiriera(escaparate) 등이 있다.

어떤 특정한 어휘가 선호되는 이유가 분명한 경우도 있다. 스페인에서 '잡다, 집다'라는 의미로 빈번히 사용되는 coger동사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일부 지역에서 '성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동사 대신에 tomar나 agarrar가 선호된다. 그리고 '요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인 cocer와 cocinar 중에서 coser는 스페인에서 사용되고 cocinar는 중남미에서 선호되는 어휘인데, 이는 중남미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인 세세오(seseo)로 인해 '바느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coser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술을 마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beber 대신에 tomar가 사용된다.

중남미 지역 내에서도 나라마다 선호되는 어휘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utobús: guagua(카리브), camión(멕시코), chiva(파나마), colectivo

(아르헨티나), góndola(페루), micro(칠레)

-limpiabota: bolero(멕시코), brillo(푸에르토리코), lustrador(중미), embolador(콜롬비아), lustrabota(페루)

-plátano: banana(아르헨티나), guineo(푸에르토리코), cambur(베네수엘라)

-rubia: güera(멕시코), mona(콜롬비아), gringa(아르헨티나), caitre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diga(전화받기): bueno(멕시코), aló(페루, 칠레), a ver(콜롬비아), hola(우루과이, 아르헨티나), qué hay(oigo)(쿠바)

-tarta: pastel(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torta(베네수엘라,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lentes: gafas(대부분 지역), anteojos(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cometa: papalote(멕시코, 쿠바), barrilete(중미, 아르헨티나), papagayo(베니수엘라), volantín(볼리비아, 칠레)

-soborno: mordida(멕시코, 콜롬비아), coima(남미)

-bolígrafo: pluma(멕시코), esferográfico(콜롬비아), lápiz de pasta(칠레), birome(아르헨티나)

2. 원주민어

중남미 각 지역에서 정복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원주민어 역시 이 지역 스페인어와 반도 스페인어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에 도착했을 때 이 지역에는 170여개의 원주민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스페인어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가진 언어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더구나 스페인어 어휘목록에 영향을 준 것은 안티야스제도의 아라우아꼬(arahuaco), 멕시코의 나우아뜰(náhuatl), 안데스 지역의 께추아(quechua)와 아이마라(aimara), 남미의 과라니(guara

ní), 칠레의 아라우까나(araucana) 정도이다. 이 언어들도 스페인어의 음운 및 형태·통사구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어휘부분에 영향을 끼쳐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어휘목록을 풍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일부 어휘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스페인어권 공통의 어휘가 되기도 하였다.

2.1 안티야스 제도의 원주민어에서 유래한 어휘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으로 원주민들과 접촉한 곳이 안띠야스 제도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물을 명명하기 위해 이 지역의 원주민어, 특히 아라우아꼬에서 많은 어휘를 차용했다. 이 어휘들은 대부분 스페인어권의 공통어휘가 되었다. 이들을 보면 barbacoa, batata, butaca, cacique, caimán, caníbal, canoa, caoba, guacamayo, hamaca, hurac'an, iguana, loro, maíz, maní, papaya, piragua, tabaco, yuca 등이 있다.

2.2 멕시코 원주민어에서 유래한 어휘

스페인어 어휘에 영향을 준 멕시코 원주민어 중에서는 아스떼까(Azteca) 제국의 공용어였던 나우아뜰에서 나온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스페인어 공통어휘에 편입된 것을 보면 aguacate, cacahuate(스페인에서는 cacahuete), cacao, coyote, chicle, chocolate, hule, jícara, petaca, petate, tiza, tomate...등이 있다.

나우아뜰어에서 나온 어휘 중 그 사용범위가 멕시코에만 한정된 것으로는 atole, chile, cuate, elote, guajolote, güipil, mapache, mecate, metate, molcajete, olote, pulque, pulquería, tequila...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멕시코 남부의 마야어는 스페인어 어휘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 이 언어에서 나온 어휘로는 henequén, cenote...등이 있다.

2.3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어에서 유래한 어휘

잉카제국에는 께추아와 아이마라라는 두 개의 중요한 언어가 사용되었다. 이 언어들은 지금도 수백만의 사용자를 가진 살아 있는 언어이다. 이들은 대부분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이다. 이 언어에서 유래한 어휘들은 중남미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일부는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어휘들을 보면 cancha, china, choclo, cocá, cóndor, fotuto, llama, mate, ojota, pallar, palta, pampa, papa, pisco, poroto, puma, puna, topo, vicuña, alpaca... 등이 있다.

2.4 과라니어에서 유래한 어휘

파라과이의 원주민어인 과라니어는 다른 지역의 원주민어에 비하여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스페인어가 중남미에 이식되면서 이 지역의 원주민어들은 스페인어에 밀려 소멸되거나 살아남았어도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는데 반하여 과라니어는 파라과이에서 공용어로서 정복자의 언어인 스페인어와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2]. 그러나 스페인어의 어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과라니어에서 나온 어휘로는 maraca, juguar, ñandu, piraña, tapir, tucán, gaucho, tapera, tapioca, tipoy...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2.5 아라우까나에서 유래한 어휘

칠레의 원주민어인 아라우까나에서는 malón이 유일하게 스페인어의 일반 어휘로 사용되고 있고, 동식물을 나타내는 canchalagua, caragua, culén, litre, achaguar, chigolo, macha, pillo, quiue...등의 어휘가 칠레 스페인어에 편입되었다.

---

2) 부에사와 엔기따(1992)에 의하면 현재 파라과이 인구의 93.5%가 과라니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2.6 현재 사용되는 원주민어 어휘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에 끼친 원주민어의 영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실은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를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사전들이 원주민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현재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보다 많은 단어를 싣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실상을 왜곡하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의 동식물이나 지리적인 현실을 명명하기 위해 원주민어에서 차용한 어휘들은 많은 수가 스페인어 공통 어휘 목록에 편입되었다. 또한 이러한 어휘들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스페인어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주민 어휘를 제외하면 각 지역은 자신들의 원주민어와 관련된 어휘들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면 기존의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대해 바께로(María Vaquero de Ramírez; 1996)는 중남미에서 원주민어의 실제 사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어휘를 안다는 것과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수의 원주민 어휘들은 역사·고고학적 지식이 풍부한 몇몇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고, 이를 과거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어휘들의 실제 사용빈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원주민 어휘 수를 조사한 로뻬 블란치(Juan M. Lope Blanch; 1969)의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멕시코 스페인어의 4,000,000어휘를 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3,384개만이 멕시코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주민 어휘이고, 어근을 기준으로 하면 238개로 전체 어휘 수의 약 1%밖에 되지 않은 아주 미미한 수치이다.

3. 아프리카어에서 유래한 어휘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의 수입은 중남미 인구통계를 변화시킨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언어 역시 중남미 스페인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주된 영향은 어휘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지역적으로는 흑인 노예들이 많았던, 안띠야스, 콜롬비아 해안 지역, 쿠바 등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에서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쿠바에서는 아프리카 종교 의식과 관련된 어휘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스페인어 일반 어휘에는 아프리카 기원의 어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일부를 보면 춤과, 악기를 나타내는 mambo, conga, samba, bongó, 과일이나 나무를 가리키는 banana, malanga 등이 있고, 그밖에도 matungo, cachimbo, burunganga 등이 아프리카어에 기원을 둔 어휘이다.

4. 다른 유럽어에서 온 어휘

중남미 여러 지역의 어휘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유럽어에서 온 어휘들의 존재이다. 18 -19 세기에 중남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언어는 불어이다. 특히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한 후 문화적 독립의 열망을 강렬하게 표출한 리오델라 쁠라타 지역에 불어에서 온 어휘들이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adición, amasar, arribista, avalancha, banal, bayú, chófer, flamboyán, fuete, masacrear, musiú, petipuá, plafón, rol... 등이 그것이다.

19세기에 있었던 이 지역에의 이태리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이태리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스페인어에 편입되었다. 이 중 중남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chao(u)이며, 그밖에도 bacán, cachar, coger, capuchino, mayar, mina. pibe, pizza... 등이 있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는 이 언어

에서 차용한 어휘들이 쓰인다. 다른 유럽 언에 비해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으로 인해 서로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포르투갈어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되는 이 언어에서 유래한 어휘를 보면 cachaza, conchabarse, criollo, facón, garúa, mucama...등이 있다.

오늘날 스페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는 비단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언어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언어이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영어에서 차용한 어휘를 보면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어에 들어온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를 보면 과학기술, 기계, 자동차, 항공, 스포츠 용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들어오는 정보·통신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용어들은 영어에서 유래한 것들로 스페인어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마다 차이가 생겨난다. 이는 스페인어권 국가들간의 의사소통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기업에게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영어에서 들어오는 전문용어를 통일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권위 있는 기관의 부재와 함께 각국의 언어민족주의로 인해 스페인어권 국가들 간의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국적 기업이 나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스페인어 어휘를 통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로 중남미에서는 computadora라 하고, 스페인에서는 ordenador라 부른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는 스페인어권 국가의 소비자를 위한 컴퓨터 관련 사용설명서를 제작하기 위해 이 두 어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 어휘가 아닌 PC라는 말을 사용해서 용어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모레노 데 알바(1992)는 중남미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pudín, ron, whisky, vermouth, bar, pijama, suéter, bikini, champú, esmoquín, mocasines, televisión, estereofónico, club, cóctel, boxeo, boxeador, crawl, tenis, polo, fútbol, gol, béisbol, bate, batear, bateo, vagón, túnel, trolebús, linotipista, canal, mitin, líder, inflación, cheque, clip... 등

외래어가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스페인과 중남미가 선호하는 외래어가 서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중남미에서는 blue jeans라 하고 스페인에서는 vaqueros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suéter를 선호하지만 스페인에서는 jersey라 부른다.

그리고 외래어를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도 차이가 난다. 중남미에서는 chofer를 말할 때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주지만, 스페인에서는 첫음절에 강세를 주어 chófer라 한다. 영어의 pyjamas가 중남미에서는 piyama 혹은 payama라 하는데 반하여 스페인에서는 pijama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 형성과정에 영어의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많은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등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어휘에 영어의 침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 지리적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단정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들 국가에서 사용되는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피상적인 인상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남미 국가들 간의 영어의 영향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언학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국가에 대한 연구만이 나와 있을 뿐이다. 그 중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멕

시코시의 교양계층 화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0개의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를 추출했다. 이 중 멕시코의 교양계층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는 20여개에 불과하고, 보통으로 쓰이는 어휘 수도 비슷하게 나왔으며, 나머지는 잘 사용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들이 실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 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또한 영어의 영향이 가장 많은 부분은 스포츠 관련 용어로 전체의 33%를 점한다. 그 다음으로 기술, 음식, 의복, 오락의 순으로 나타났다(Lope Blanch; 1990).

Ⅲ. 나가면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중남미 스페인어는 스페인 스페인어와 대비되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를 갖는 언어체계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방언들로 구성된 지역적인 의미만을 갖는 집합체이다. 중남미 정복과 함께 이식된 스페인어는 지리적 환경,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 토착어 및 다른 외래어의 영향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스페인의 스페인어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특히 어휘부분에서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스페인의 어휘 차이뿐만 아니라 중남미 각 국가간에도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의 형성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그 요소들을 정리하면, 첫째, 중남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페인어 본래의 어휘들이 의미변화를 겪어야 했고, 둘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중남미에 이주한 사람들이 가져온 스페인 각 지역의 어휘들,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의 어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입되었으며, 셋째 식민 과정에서의 선원들의 역할과 기나긴 항해 동안의 접촉 결과

로 선원들이 사용한 용어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고, 넷째, 스페인에서는 이미 사라진 어휘들이 중남미에는 지금까지 남아 사용되고 있으며, 다섯째 정복 전 사용되었던 원주민어에서 당시 유럽에서는 생소한 사물이나 일상제도 등을 명명하기 위해 많은 수의 어휘가 차용되었고, 여섯째, 스페인어와는 다른 유럽어 즉, 프랑스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의 영향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20세기 과학문명을 주도한 영어에서 유래한 어휘들이 많이 들어왔다.

또한 중남미 스페인어 어휘가 스페인의 어휘와 차이를 보이는 데는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Buesa Oliver, Tomás y Enguita Utrilla, José María(1992), *Léxico d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Mapfre.

Fontanella de Weinberg, María Beatriz(1992),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Mapfre.

Lope Blanch, Juan M.(1969), *El léxico indígena en el español de México*, México: El Colegio de Mexico.

_____(1990), "Anglicismos en la norma lingüística culta de México", *investigaciones sobre dialectología mexicana*, México: UNAM, pp. 183-192

Moreno de Alba José G.(1995), *El español en América*, México: Fonde de Cultura Económica.

_____(1992), *Diferencias léxicas entre España y América*, Madrid: Mapfre.

Rona, José Pedro(1969), "¿Qué es un americanismo?", *Simposio de México*, México: UNAM, pp. 135-148.

Vaquero de Ramírez, María(1996), *El español de América II, Morfosintaxis y Léxico*, Madrid, Arco/Libros.

Vicente, Zamora(1967), *Dialectología española*, Madrid: Gredos